주간 테러동향

'21. 4. 30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 하원, 이슬람권 국민 입국 차별 반대법 의결
 - 4.21 美 하원은 「트럼프」前 대통령이 테러예방을 이유로 발동한 이슬람권 국민의 입국 금지가 위법한 행정명령이라며, 이를 해소하기 위해 '非이민자를 위한 국적 차별 반대법'을 통과시켰다고 발표
 - * 「주디 추」 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대통령도 종교를 이유로 美國 입국 희망자를 막는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며 그 취지를 설명
- 美 상원, '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' 통과
 - 4.22 美 상원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 대상 무차별 공격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△신고 핫라인 설치 △공공 교육 확대 △범죄 식별 훈련 보조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'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'을 의결
 - * 「바이든」 대통령도 同법안으로 '아시아계의 정의와 평등에 한 걸음 다가갈 것'이라며 환영
- 美, 아프가니스탄 주둔 자국군 철수 작전 개시
 - 아프가니스탄 주둔 美 사령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"공식적인 철군은 5.1이 되겠지만 미군과 NATO군의 철수는 이미 4.25부터 시작되었고, 기지와 장비는 아프간軍에 이전될 것"이라고 발표
 - * 4.14 「바이든」 대통령은 9.11 이전 완전 철군을 발표(아프가니스탄 주둔 美軍은 약 2,500명)

유럽

- 伊, '2016년 佛 니스 테러*' 무기 공급 용의자 체포
 - 4.22 伊 경찰은 나폴리 인근 마을에서 '2016년 니스 테러 참사'의 주범인 「모하메드 라후에유 부렐」에게 총기 등 무기를 공급한 혐의로 알바니아系 「엔드리 엘레치(28세, 男)」를 체포했다고 발표
 - * '16.7.14. 22:30경 프랑스 해변 도시 니스에서 테러범이 대형트럭을 몰고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하는 '바스티유의 날' 축제 행사장으로 돌진, 사망 86명·부상 100여명 초래

아 · 태평양

- 인천세관, 조준경·모의총포 등 위해물품 반입 사례 60건 적발
 - 4.22 인천세관은 '21.1분기 해외직구를 통해 조준경·모의총포·석궁 등 국민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 반입을 60건 적발했으며, 이는 최근 3년 同既 대비 최대건수라고 발표
 - * 조준경(38건) > 석궁(8건) > 모의총포(7건) > 총기류·부품(4건) > 전자총격기(2건) 順
- 외교부, 코트디부아르 2개州에 3단계 '철수 권고' 발령
 - 4.23 외교부는 코트디부아르 초로고州와 붕카니州에서 최근 테러 공격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어 同 지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인 '철수 권고'로 상향 조정

(1단계) 여행유의	: (체류자) 신변안전 유의, (여행예정자) 여행 유의
(2단계) 여행자제	: (체류자) 신변안전 특별유의, (여행예정자) 여행 필요성 신중검토
(3단계) 철수권고	: (체류자) 긴급용무가 아닌한 철수, (여행예정자) 여행 취소·연기
(4단계) 여행금지	: (체류자) 즉시 대피·철수, (여행예정자) 여행 금지
- 세계 최초 '국가재난안전통신 전국망' 개통
 - 4.26 KT·SK텔레콤은 전국의 국토·해상을 포괄하여 경찰·소방·국방·철도·지자체 등 8대 분야 333개 국가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세계 최초의 국가재난안전통신 전국망을 개통했으며, 테러·재난상황시 관계기관간 일원화된 무선통신이 가능하다고 발표
 - * 최대 2,500개 단말간 통신이 가능하며, 기지국 중계없이 단말간 직접 통신도 가능

아프리카

- 나이지리아, 駐獨 '美軍 아프리카 사령부' 아프리카 이전 요청
 - 4.27 「부하리」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「블링컨」 美 국무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아프리카內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안보위협을 설명하며, 駐獨 '美軍 아프리카 사령부'를 아프리카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
 - * 대테러戰 동맹인 「데비」 차드 대통령이 반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지 일주일만에 발언

이라크 바그다드 차량폭탄 테러

- '16.4.30 오전,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남동부 나흐라완 지역 소재 재래시장에서 폭탄을 탑재한 3t 트럭을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, 21명 사망·24명 부상
- 사건 발생 직후,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S는 자체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공격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
- 현지 경찰은 관련 공격은 바그다드 시아파 聖地로 도보 이동중이던 순례자 행렬을 겨냥했던 것으로 최초 추정했으나, 이후 내무부가 시장에서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종파갈등 요인을 전면 부인
 - * '16.3.25 바그다드 축구장에서 시아파 겨냥 자살폭탄 테러(140여명 死傷)가 既발생 했던 상황
- 한편, 내무부는 사건 원인에 대해 “국제 연합군이 공습을 강화하면서 ISIS가 수세에 몰리자 반격 차원으로 민간인을 공격해 온 일련의 테러 中 한 사례일 뿐이다”라며 수니-시아파간 갈등 요인은 再次 부정

< ISIS(이라크·시리아 이슬람국가) >

- (목 표) 시리아·이라크 등 중동 전역을 통괄하는 원리주의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('04.4 결성)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04.10), 미국('04.12), 캐나다('12.8)
- (조직규모) 약 14,000~18,000명 추정('19.8, 美 국방부) * 전성기 최대 약 7만명
- (연계세력) ISIS-호라산·西아프리카·시나이 지부 등 20여개
- (활동지역) 이라크 서북부 및 시리아 동부 지역
- (활동수법) '19.3월 시리아內 점령지 상실 이후, 게릴라식 테러를 지속 중인 가운데 선전매체 등을 통해 테러 선동
- (주요테러) ① '15.11 프랑스 파리 공연장·축구장 등 동시다발테러(사망 130, 부상 350)
 ② '17.12 이집트 수피교 사원 폭탄·총격테러(사망 305, 부상 128)
 ③ '19.4 스리랑카에서 ISIS추종단체의 연쇄테러(사망 259, 부상 500)